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 독자 마당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전리안: acum  
·하이텔: 34713

## 물질 가난해도 넉넉한 마음 갖자



온갖 수도와 극제적인 망신을 당해 가면서 남의 나라에서 빛을 얻어와야만 거덜난 나라 살림살이를 꾸러갈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부로 쓰고 마구 버리면서 잘못 살아온 생활 태도에 대한 과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인 풍요에 삶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익혀 왔던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한다. 저마다 투철한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고마워하고 만족

할 줄 알아야 한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 '사치한 자는 3년동안 쓸 것을 1년에 다 써버리고, 검소한 자는 1년동안 쓸 것을 3년을 두고 쓴다. 사치한 자는 부유해도 만족을 모르고, 검소한 자는 가난해도 여유가 있다. 사치한 자는 근심 걱정이 많고, 검소한 자는 복이 많다.' 히말라야의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은 집집마다 비닐봉지 속에 꽃을 가꾸며 살아가고, 화분을 살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비닐 봉지에 꽃을 담아 기른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내 마음 속까지 향기로운 꽃씨를 뿌려 준다. 이근우 <청담중학교 교장>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을 읽고

### 자비심 담긴 흑인이야기 '감동'

"모르아, 이 책 한 번 읽어보지 않았나...? 아빠 아는 분이 쓰신 책인데 <금강경>에 대해 알기 쉽게 써놨다." 아버지의 제의에 의해 읽게 된 <금강경>은 머리말만으로도 머리가 아팠다. "한번 읽어보렴. 생각보다 알기 쉽게 나타나 있다." 어렵고 지루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은 잘못이었다.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책 속의 갖

가지 비유와 실화가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특히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큰 힘을 지녔던 흑인의 이야기는 나를 감동시켰다. 다른 생각이나 잡념없이 순수하게 기도하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난 감명했다. "이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순수하게 사심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김모란 <홍익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6>

## 독자만화



안희주 <서울 성북구 장위동>

## 독자 시

### 불교문화테마여행

항상 내 한마음에 계신 부처님  
앞으로도 항상 내 한마음 속에 계실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세대에  
그려하시리라.  
복을 지으면 바르게 갈 수 있음을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몸으로 배우는 '불교문화테마여행'

천년의 유서깊은 절집에서  
인연살화 돌으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바쁜 삶속에  
부처님의 말씀 들려주어  
예말리 가는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법문을 듣게 해주는  
고맙고 고마운 '불교문화테마여행'

인 '불교문화테마여행'  
다달이 기대와 기대를 주었던 '불교문화테마여행'  
'07 문화유산의 해에 막을 내리지 말고  
오래오래 계속되어  
대한민국 아니 지방세에 오수도수 사이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 지난해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본사가 펼친 불교문화테마여행에 참여한 김민자씨가 테마여행이 끝난 것을 아쉬워 하며 쓴 시.

## 해인골프장 허용판결 납득안가

법은 돈이 많고 적음,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전 해인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실로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그 관전은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골프장 건설이 가산의 자연 파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함에도 골프장을 지으려는 사업주나 이를 방치하는 문화재관리국의 태도는 우리의 문화재의식 수준을 보여 주는 것 같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전국의 많은 산이 골프장 건설로 민둥산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해인골프장건설과 민족 전체의 문화재를 저울질하지 못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며 규장각 문서의 '영구대여'를 몸으로 막으려 했던 프랑스 박물관의 여직원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은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김근수 <대구시 동구 동호동>

# 만화 100 이야기

**빈 약속**

옛날 어떤 악사가 있었는데 그는 어느날 왕의 부름을 받아 연주를 하게 되었다.

오- 정말 감미롭고 아름다운 소리 로구나

정말 훌륭한 연주 로구나

황궁 하옵시다

나를 즐겁게 해준 상으로 천냥을 주리라

저...천냥! 저...정말이 옴니까

그렇다 정말이다

아이고 마마 너무 감사 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 가도록 하라

천냥은 주시지도 않고 돌아가라요?

안주다니! 컸지 않았느냐?

아니! 주셨다니 언제 주셨습니까?

주신다는 말만 먼저 하셨을 뿐입니다

바로 그 주다는 말이 거짓일세

무...무슨 말씀입니까?

그대의 연주는 한낱 내 귀만 즐겁게 해주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 또한 천냥을 준다는 말로 그대의 귀를 즐겁게 해 주었느니라

세상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도 모두 덧없어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 멀어지고 마는 것 마치 저 빈들악, 빈약속 처럼...

# 10주년 기념 특별할인판매

귀의 삼보하옵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삼보들사**에서는 「창사 1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유명 출판작품을 확보하여 특별 봉사가격에 주문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찰과, 불자님들의 가정과 사무실에 1품씩 소장하셔서 불심을 항상 결에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발원하옵니다. (※ 한정된 작품이오니 선착순 문의 바랍니다.)

사계절꽃 : 높이 90cm x 140cm

잉 어: 높이 90cm x 140cm

달 마: 높이 90cm x 60cm

가리개

문의처 : 02)831-2848 ~ 9  
02)831-7075  
팩 스 : 02)831-2849  
수신자부담전화 : 080)284-2848  
※ 신용카드일 경우 할부가능.